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4, Vol. 36, No. 1, 205-228
http://dx.doi.org/10.23844/kjcp.2024.02.36.1.205

OPEN ACCESS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의 관계: 성평등태도로 조절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심 은 정　　조 영 주†

위드미 심리상담연구소 / 소장　　한경국립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가해 및 피해)의 관계에서 자기분화가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고, 자기분화의 매개효과가 성평등태도에 따라 조절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성인 미혼 남녀 440명의 설문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한 자료는 SPSS 27.0과 SP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경험은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 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셋째, 자기분화와 데이트폭력 가해 간의 관계 및 자기분화와 데이트폭력 피해의 간의 관계를 성평등태도가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 및 데이트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피해 간의 관계를 자기분화가 유의하게 매개하였고, 이때 자기분화의 매개효과가 성평등태도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상담 실제에 갖는 함의를 제시하고,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가정폭력경험, 데이트폭력, 자기분화, 성평등태도

† 교신저자 : 조영주, 한경국립대학교 브라이트칼리지,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Tel: 031-670-5414, E-mail: yjcho@hknu.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최근 이별을 고한 연인에게 잔인한 보복을 하는 등 데이트폭력으로 분류되는 강력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의 개념으로 데이트관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폭력까지 포함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예: Holtzworth-Munroe, 2005; Kelly & Johnson, 2008; Leemis et al., 2022). 친밀한 파트너 폭력은 2010년부터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되어 오다가 최근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Miller & McCaw, 2019), 2016/17년에 미국에서 전국 규모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47.3%와 남성의 44.2%가 파트너에 의한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및 스토킹 피해 경험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Leemis et al., 2022). 데이트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비율은 시기별로 변화가 있었다. 1980년대까지는 여성이 피해자로, 남성이 가해자로 주로 보고되었으나, 1990년대부터는 남성 피해자와 여성 가해자가 증가하면서 가해와 피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Kelly & Johnson, 2008). 특히 초기 성인 남녀의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박미랑, 2009; Chan et al., 2008; Holtzworth-Munroe, 2005). Straus(2008)가 32개국의 연애 중인 남녀 13,60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쌍방 폭력이 가장 흔한 폭력의 형태였고 여성의 일방적인 폭력과 남성의 일방적인 폭력이 순서대로 그 뒤를 따랐다.

데이트폭력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나 연구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는 데이트폭력을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의 하위유형으로 연인관계 혹은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와 통제 행동으로 본다.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2003)에서는 연인관계나 호감을 갖고 만나는 관계에서의 성폭력, 성희롱, 협박, 신체적・성적・정신적・정서적 학대와 통제 및 사회적 고립, 디지털 및 인터넷 관련 범죄 및 스토킹 등을 데이트폭력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청에서는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살인과 기타 경범죄 포함하여 데이트폭력을 다루고 있다(경찰청, 2020). 이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의 여러 정의들을 토대로 정혜원(2020)이 제안한 바에 따라, 데이트폭력을 낭만적 관계에 있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으로 본다. 여기서 심리적 폭력은 욕설, 모욕적 발언, 위협이 될 정도의 고함지르기 등의 언어적 공격과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거나 또 그렇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정서적 폭력을 의미한다. 신체적 폭력은 손발로 밀거나 때리는 행동, 도구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동이다. 성적 폭력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성희롱과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요구하고 시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할 것으로 기대하는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하면 개인은 신체적 안녕과 심리사회적 안녕에 즉각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Exner-Cortens et al., 2013; Miller & McCaw, 2019). 청소년과 성인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물질남용의 위험이 높았으며(Parker & Bradshaw,

2015; Temple & Freeman, 2011), 불안, 자살사고와 우울의 증가를 보였다(박은아, 2021; 성용은, 2021; Exner-Cortens et al., 2013). 대학생의 경우 학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편입이나 학업 중단의 빈도가 높았다(Klencakova et al., 2023). 데이트폭력의 빈번한 발생과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데이트폭력의 기제를 정교하게 이해하는 연구 및 매개변인이나 조절변인을 검증하는 연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전 예방과 사후 개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이현정, 2018).

데이트폭력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가정폭력경험이다. 개인은 원가족이라는 맥락 속에서 자신에 대한 자기상과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발달시킨다(최해림, 조영주, 2001; Kerr & Bowen, 1988). 생애 초기에 가정에서 형성한 관계 경험은 이후의 관계 경험의 원형이 되며, 성인기의 연애와 같은 친밀한 관계의 질을 포함하여 삶의 다양한 영역의 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엄혜정, 정혜정, 2006; Berzenski & Yates, 2010). 선행연구들은 아동기에 부모에게 학대받은 사람의 경우 데이트폭력을 경험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하는데,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사회학습이론이다. Bandura(1973)가 주장한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보상이나 처벌이 없어도 그 행동을 모방하여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부모 간 폭력을 지속적으로 목격하면 폭력을 학습하게 되고, 성인이 된 후 그것을 모방하여 폭력으로 대인관계 갈등을 해결하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Dardis et al., 2015). 실제로 어린 시절 폭력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았던 사람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등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높았고, 실제로 폭력을 사용할 확률도 높았다(성용은, 2021; 안귀여루, 2006; Riggs et al., 1990). 실제로 많은 연구가 아동기의 학대경험과 데이트폭력 간의 유의한 관련성을 지지하고 있다(예: 김은경, 엄애선, 2010; 박미랑, 2009; 박진경, 2019; Jennings et al., 2013; Reyome, 2010; Rich et al., 2005).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이 데이트폭력의 가해와 피해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yome, 2010; Rich et al., 2005).

데이트폭력을 가정폭력경험의 모델링이라는 사회학습이론으로 이해하면 설명이 간명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설명이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다(Shorey et al., 2008). 폭력에 노출된 정도보다는 폭력과 학대 경험을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였는지와 그 경험을 어떻게 내면화하였는지가 심리적 적응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Wright et al., 2009). 이러한 지각과 내면화의 수준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자기분화다(한미향, 1999). 자기분화는 개인이 부모와 정서적으로 융합된 상태로부터 정서적인 자주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Bowen, 1982), 정서적 반응을 다루고 강렬한 감정을 경험할 때도 지적인 사고를 하며 관계 속에서 친밀성과 자율성을 경험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Skowron et al., 2009). 자기분화는 다시 개인적 수준과 관계적 수준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개인적 수준의 자기분화는 사고와 감정이 균형 잡혀 있어서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관계적 수준의 자기분화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율성과 친밀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Kerr & Bowen, 1988). 자기분화는 정서적 반응(emotional reactivity), 자기입장(I-position),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 타인과 융합(fusion with others)이라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Peleg & Rahal, 2012). 첫째, 정서적 반응은 외부나 내부에서 자극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둘째, 자기입장은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셋째, 정서적 단절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심하게 상처받는 느낌이나 높은 친밀성으로 인한 위협을 경험할 때 거리를 두거나 자신을 고립시키는 정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타인과 융합은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심하게 뒤얽히는 정도를 의미한다(Kerr & Bowen, 1988).

자기분화는 가족 내 상호작용 속에서 부모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세대를 통해 전이되는 특징이 있다(최연화, 2012; Bowen, 1982; Kerr & Bowen, 1988). 가정폭력을 포함한 역기능적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동은 학대 관계에 융합되어 가해자의 욕구에 정서적 초점을 맞추면서 건강한 자기분화를 발달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Bowen, 1982; Kerr & Bowen, 1988; Skowron et al., 2014). 비슷한 맥락에서 Harter(1998)는 일반적인 아동기 학대 경험 및 정서적으로 학대적인 양육은 아동의 자기인식, 주도성, 및 정체감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아동기 학대 경험은 낮은 자존감, 불안, 우울, 분노, 해리, 신체화, 높은 자기 비난, 강렬한 수치심과 관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riere & Runtz, 1988; Kim & Cicchetti, 2006; Reyome, 2010).

연구자들은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 때 불안과 좌절에 대한 감내력이 낮고, 정서적 반응 및 정서적 단절이 높고, 타인에 대한 의존성과 피암시성이 높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학대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였다(Baptist et al., 2012; Horwitz et al., 2009; Skowron & Platt, 2005). Rosen 등(2001)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원가족에서의 폭력경험과 함께 현재 파트너의 자기분화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데, 구체적으로 정서적 단절 경향이 높은 청년은 타인과 거리를 두고 무관심하며 타인을 조종하는 경향이 있고 대인관계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전은희, 정여주, 2017). 정서적으로 반응적인 청년은 정서적 단절과 융합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높은 의존성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공격성과 폭력행동을 보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ubbins et al., 2010). 또한 Skowron 등(2009)은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기분화 수준과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자기분화 수준과 성인기 초기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조사한 연구(Skowron & Platt, 2005)는 정서적 반응과 정서적 단절이 높은 사람일수록 아동을 학대할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면서, 자기분화와 폭력성의 관계를 지지하였다. 이렇게 이론적, 경험적 선행연구는 가정폭력경험이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분화가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지지하며, 자기분화가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강력한 유교적 가부장제의 남성 중심적 태도가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윤진 등, 2012). 여성주의 이론에 따르면 폭력을 성(gender)과 힘(power)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Yllo, 1993). 가부장적 문화는 권력의 축이 되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보고 여성이 불복종할 때 제재와 응징을 행사하는 것을 타당화하며, 성별에 따라 순결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 즉, 전통적 성역할 태도는 남성의 공격성과 주도성을 옹호하고, 여성을 의존적, 피동적 존재로 본다(김은경, 엄애선, 2010). 이러한 태도가 연인관계에 적용되면 친밀한 관계를 권력 관계로 접근하여 남성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김은경, 엄애선, 2010; 김재엽 등, 2010; 윤진 등, 2012; 이지연, 이은설, 2005; 조영주, 심은정, 2023; Kaura & Lohman, 2007; Murnen et al., 2002; Ozaki & Otis, 2017; You & Shin, 2020)은 이러한 성역할 태도와 성별 불평등이 남녀 간의 폭력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에 속한다고 설명한다. Lichter와 McCloskey(2004)는 종단연구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사람이 데이트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지연과 이은설(200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높을 때 성적 자기 주장성이 약화되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고, 서경현 등(2010)은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Johnson과 Leone(2005)은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의 패러다임을 확장하여 관계의 비대칭 권력구조가 폭력적 관계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즉 관계에서 주도권, 권력 또는 지위의 비대칭이 생겨나면, 그것은 폭력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가 비대칭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개인은 그 권력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경현 등(2010)은 데이트 경험이 있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데이트폭력의 가해 및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미경험자나 가해 경험만 있는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보고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비대칭적 성의식이 한국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을 설명하는 데 타당한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와 가치가 낮을수록, 또는 개인의 성평등태도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낮아져 데이트폭력의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성평등태도는 성별이 어떻든 간에 차별, 고정관념, 편견 없이 개인이 자신의 관심을 개발하고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공적 영역과 가정에서의 성평등적인 태도를 의미한다(이수연 등, 2018). 개인이 낮은 수준의 자기분화를 가지고 있어 연인관계에서 폭력에 취약하더라도, 성평등태도가 높다면 상대를 동등하게 존중하여 폭력의 사용을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성평등태도의 조절효과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지만, 젠더감수성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수정과 김은영(2022)은 젠더감수성을 가부장적이고 비대칭적인 관계 패러다임이 아닌 평등하고 대칭적인 관계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차별이 아닌 차이로 성별 문제를 인식하려는 문화적 감수성으로 정의하면서, 젠더감수성이 가정폭력 노출과 데이트폭력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보고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화숙(2016)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를 입증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개인의 가정폭력경험 그 자체도 데이트폭력을 예측할 수 있지만, 자기분화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데이트폭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자기분화와 데이트폭력의 관계를 성평등태도가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성평등태도는 남성과 여성이 어떤 식으로 구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규범 및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포함하기 때문에(이진영, 2011), 사회화 과정을 거쳐 사회문화적 기대치를 인식하고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가지면서 형성되는 편이다. 성평등태도는 성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포함하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를 거치면서 의식화되는 태도이며 성인기에도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이화숙, 2016), 성장기의 가정폭력경험 자체가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현재 자기분화 수준과 데이트폭력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자기분화 수준이 낮아 데이트폭력에 취약해질 수 있는 경우에도 개인이 성평등태도를 가지면 데이트폭력과 같은 부당한 관계를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홍미리, 2005; Thompson & Mcgivern, 1995). 따라서 성평등태도는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이 데이트폭력에 취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하나의 모형 안에서 검증함으로써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정교화하고 데이트폭력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중재의 초점이 되는 변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가정폭력경험이 많을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낮아져서 이것이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평등태도가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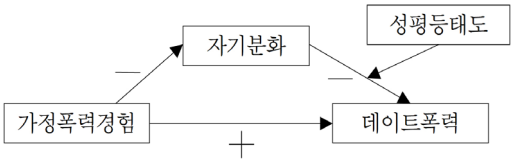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연구가설1. 가정폭력경험은 데이트폭력(가해, 피해)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2.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가해, 피해)의 관계를 자기분화가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3. 자기분화와 데이트폭력(가해, 피해) 간의 관계를 성평등태도가 조절할 것이다.

연구가설4.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가해, 피해)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는 성평등태도의 수준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방 법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하여 전문 설문 조사 기관에 설문을 의뢰하여 해당 기관에 등록된 패널이 접속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설문 관련 링크를 탑재하였다. 현재 이성과 연애 중인 20대와 30대의 성인 미혼 남녀 중에서 연구의 목적과 설명을 읽고 여기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참

여자가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 도중 참여 의사를 철회하고 싶은 경우에는 설문을 중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설문 참여자는 설문 기관을 통해 1분당 100원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받는 식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본 연구는 OO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SSU-202202-HR-380-1)을 받고 진행되었다.

연구대상

현재 연애를 하고 있는 20대와 30대의 미혼 남녀 440명에게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 중 남성이 220명(50%)이었고, 여성이 220명(50%)이었다. 나이는 평균 29.32세(표준편차 4.63)였고, 현재 파트너와의 연애 기간은 평균 28.87개월(표준편차 29.57)이었다. 거주지는 서울이 152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40명(31.8%), 영남 79명(18.0%), 충청 36명(7.5%), 호남 23명(5.2%), 강원 7명(1.6%), 제주도 3명(0.7%)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중 304명(69.1%)이 가정폭력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데이트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은 424명(96.4%),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은 386명(87.7%)이었다.

측정도구

가정폭력경험

허묘연(2004)이 개발한 자기보고형 질문지 중에서 학대 요인 6문항과 방임 요인 5문항을 포함하여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대는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의미하고, 방임은 자녀가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행동의 결여를 의미한다. 각 문항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경험한 정도와 어머니로부터 경험한 정도를 각각 5점 척도(1: 없음, 2: 가끔, 3: 보통, 4: 자주, 5: 매우 자주)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아버지 폭력과 어머니 폭력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을 많이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허묘연(2004)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아버지의 학대와 방임이 .86과 .69였으며, 어머니의 학대와 방임은 각각 .75와 .6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아버지 폭력이 .91, 어머니 폭력이 .93, 그리고 전체가 .94였다.

자기분화

자기분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혜정과 조은경(2007)의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분화 척도는 심리내적 차원과 대인관계 차원을 측정하게 되어 있다. 심리내적 차원은 정서적 반응 9문항과 자기입장 8문항을 포함한다. 여기서 정서적 반응은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의 자극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이성보다는 감정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는 행동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자기입장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으로부터 정서적 압력을 받아도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과 신념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대인관계 차원은 타인과의 융합 7문항, 정서적 단절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인과의 융합은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 관계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의견, 의사결정, 갈등 대처 방식에서 타인의 영향을 받는 정도이고, 정서적 단절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두려움에 대한 방어로 친밀한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융합은 9문항으로 구성되는 심리내적 차원과 대인관계 차원을 모두 측정하는 하위요인으로, 개인의 자존감이나 정서가 타인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 정도를 나타낸다. 모든 문항은 Likert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기입장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의 문항은 역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높다고 본다. 기혼 남녀 763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혜정과 조은경(2007)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합치도는 .89였으며, 5개의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는 .69~.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체 내적합치도는 .93이었다.

성평등태도

성평등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수연 등(2018)이 개발한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의 축약형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공적 영역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여성 권리 요구에 대한 태도, 여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남성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가부장적 가족 제도에 대한 태도, 가정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로 총 6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2문항씩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진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Likert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성평등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내용으로 하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은 역산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태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성평등태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는 이수연 등(2018)의 연구에서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

Straus 등(1996)이 개발한 갈등책략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2)를 김정란(1999)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여 데이트폭력을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이라는 3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며, 각 하위요인은 11문항, 7문항, 4문항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이 파트너에게 가한 데이트폭력 가해를 보고하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파트너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 없음, 2: 가끔, 3: 보통, 4: 자주, 5: 매우 자주)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전체 점수의 평균으로 데이트폭력 정도를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데이트폭력 가해와 데이트폭력 피해가 높은 것으로 본다. 김정란과 김경신(1999)의 연구에서 데이트폭력 가해에서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및 성적 폭력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87, .78, .70이었고, 데이트폭력 피해에서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및 성적 폭력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86, .83, .7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데이트폭력 가해와 데이트폭력 피해가 각각 .95와 .96이었다.

자료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27.0과 Preacher 등(2007)의 SPSS Macro 4.1을 활용하였다. 우선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빈도분석 및 기술분석으로 살펴보았고, 주요 변인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여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술분석으로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고, 상관분석으로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에 대한 성별 차이와 성별을 통계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1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가설2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 및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였다. 이어서 연구가설3에서 제시한 대로 자기분화가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평등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가설4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Model 14를 사용하여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평등태도로 조절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SPSS Macro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ipping) 방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 조절효과, 그리고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때 신뢰구간은 95%, 무선표본 수는 5000으로 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 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포함한 기술분석 결과 및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10 미만이면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는 Kline(2015)의 기준에 따라, 본 연구의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주요 변인의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가정폭력경험은 자기분화와 중간 크기의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28, p<.001), 성평등태도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r=-.07, p>.05),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와는 큰 크기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r=.48, p<.001; r=.54, p<.001). 자기분화는 성평등태도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r=.04, p>.05),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와는 각각 중간 크기와 작은 크기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r=-.28, p<.001; r=-.18, p<.001). 성평등태도는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와 중간 크기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r=-.35, p<.001; r=-.38, p<.001). 데이트폭력 가해와 데이트폭력 피해는 큰 크기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r=-.86, p<.001).

표 1.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1	2	3	4	5	*M*	*SD*	왜도	첨도
1. 가정폭력경험	-					2.95	1.28	1.73	2.91
2. 자기분화	-.28***	-				2.53	0.68	0.06	-0.11
3. 성평등태도	-.07	.04	-			3.01	0.53	-0.40	-0.14
4. 데이트폭력 가해	.48***	-.29***	-.35***	-		1.50	0.58	2.10	4.09
5. 데이트폭력 피해	.54***	-.19***	-.38***	.86***	-	1.36	0.53	2.45	5.45

주. N=440. ***p<.001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서 성차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차는 유의하였다(Wilks' Λ=.61, F(5,434)=55.21, p<.001). 구체적으로, 가정폭력경험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438)=5.34, p>.05). 한편 자기분화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1,438)=18.09, p<.001), 성평등태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F(1,438)=32.41, p<.001),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1,438)=1.32, p<.05; F(1,438)=4.94, p<.001). 이에 가설검증 과정에서는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성별의 효과를 통제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가정폭력경험의 전체효과 및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데이트폭력에 대한 가정폭력경험의 전체효과(연구가설1)와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연구가설2)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식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을 활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우선 연구가설1에서 가정한 데이트폭력에 대한 가정폭력경험의 전체효과는 회귀분석의 1단계에 제시되어 있다. 데이트폭력 가해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성별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487, p<.001). 데이트폭력 피해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도 성별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전체효과도 유의하였다(β=.557, p<.001).

연구가설2의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 가

표 2. 데이트폭력에 대한 가정폭력경험과 자기분화의 회귀분석 및 자기분화에 대한 가정폭력경험의 회귀분석

예측변인	1단계 (준거변인: 데이트폭력 가해)			2단계 (준거변인: 자기분화)			3단계 (준거변인: 데이트폭력 가해)		
	B(SE)	β	*t*	*B(SE)*	β	*t*	*B(SE)*	β	*t*
성별	-.158(.048)	-.137	-3.288*	-.375(.060)	-.276	-6.254***	-.231(.049)	.201	-4.744***
가정폭력경험	.220(.019)	.487	11.672***	-.138(.024)	-.259	-5.871***	.194(.019)	.428	10.156***
자기분화							-.195(.037)	-.230	-5.234***
예측변인	1단계 (준거변인: 데이트폭력 피해)			2단계 (준거변인: 자기분화)			3단계 (준거변인: 데이트폭력 피해)		
	B(SE)	β	*t*	*B(SE)*	β	*t*	*B(SE)*	β	*t*
성별	-.263(.041)	-.249	-6.428***	-.375(.060)	-.276	-6.254***	-.301(.042)	.286	-7.128***
가정폭력경험	.230(.016)	.557	14.353***	-.138(.024)	-.259	-5.871***	.216(.016)	.522	13.105***
자기분화							-.102(.032)	-.132	-3.165*

주. N=440. $^{*}p$<.05, $^{***}p$<.001.

표 3.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매개변인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데이트폭력 가해	가정폭력	자기분화	.060	.012	.038	.084
데이트폭력 피해	가정폭력	자기분화	.034	.010	.014	.055

해 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와 관련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의 회귀분석의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가정폭력경험이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β=-.259, p<.001).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가정폭력경험의 영향을 고려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자기분화가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β=-.230, p<.001). 이때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직접효과(β=.428, p<.001)는 매개변수의 효과를 고려하기 전(β=.487, p<.001)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그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자기분화는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유의성을 PROCESS Macro의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간접효과의 계수는 .060, 하한값 .038, 상한값 .084였고 두 구간 사이의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 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가정폭력경험이 매개변수인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다(β=-.259, p<.001).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가정폭력경험의 영향을 고려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자기분화가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β=-.132, p<.05). 이때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직접효과(β=.522, p<.001)는 매개변수의 효과를 고려하기 전(β=.557, p<.001)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그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자기분화는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 피해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분화의 간접효과의 계수는 .034, 하한값 .014, 상한값 .055로 두 구간 사이의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 피해 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자기분화가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평등태도의 조절효과

자기분화와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성평등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을 활용하였다. 이때 성별의 영향을 통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데이트폭력 가해에 대하여 자기분화와 성평등태도의 주효과는 각각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253, p<.001; B=-.340, p<.001), 이들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244, p<.001). 조절효과 양상은 표 5와그림 2에 제시하였다. 자기분화가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성평등태도가 높을 때(B=-.125, p<.05)보다 성평

표 4. 자기분화와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성평등태도의 조절효과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t*	*LLCI*	*ULCI*	*F*	R^2
데이트폭력 가해	성별	.012	.061	.193	-.109	.132	31.125***	.223
	자기분화	-.253	.039	-6.499***	-.330	-.177		
	성평등태도	-.340	.056	-6.068***	-.450	-.230		
	자기분화×성평등태도	.244	.066	3.712***	.115	.373		
데이트폭력 피해	성별	-.108	.057	-1.900	-.004	.220	27.501***	.202
	자기분화	-.177	.036	-4.897***	-.248	-.106		
	성평등태도	-.299	.052	-5.774***	-.401	-.197		
	자기분화×성평등태도	.199	.061	3.274***	.080	.318		

주. N=440. ***p<.001.

등태도가 낮을 때(B=-.382, p<.001)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분화와 데이트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성평등태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자기분화와 성평등태도의 주효과는 각각 유의하였고(B=-.177, p<.001; B=-.299, p<.001), 이들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였다(B=.199, p<.01). 표 5와 그림 3에 구체적인 조절효과의 양상을 포함하였다. 성평등태도가 낮을 때의 자기분화가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나(B=-.282, p<.001), 성평등태도가 높을 때 자기분화가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72, p>.05).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성평등태도로 조절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성평등태도에 의해 조절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eacher 등(2007)이 제안한 대로 매개모형과 조절모형을 확인한 후 조절

표 5. 성평등태도 수준별 자기분화와 데이트폭력의 관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조절변인	조절변인 수준	*B*	*SE*	*t*	*LLCI*	*ULCI*
데이트폭력 가해	자기분화	성평등태도	-1 *SD*	-.382	.055	-6.930***	-.490	-.274
			Mean	-.253	.039	-6.499***	-.330	-.177
			+1 *SD*	-.125	.049	-2.548*	-.221	-.029
데이트폭력 피해	자기분화	성평등태도	-1 *SD*	-.282	.051	-5.521***	-.382	-.182
			Mean	-.177	.036	-4.897***	-.248	-.106
			+1 *SD*	-.072	.045	-1.582	-.161	.017

주. N=440.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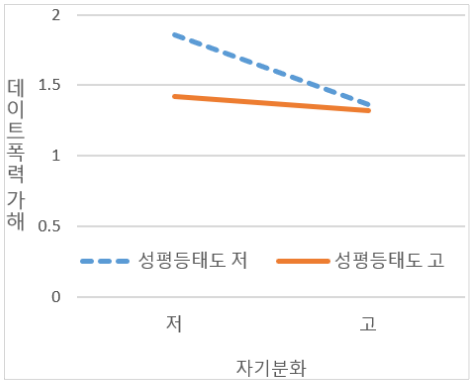

그림 2. 자기분화가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평등태도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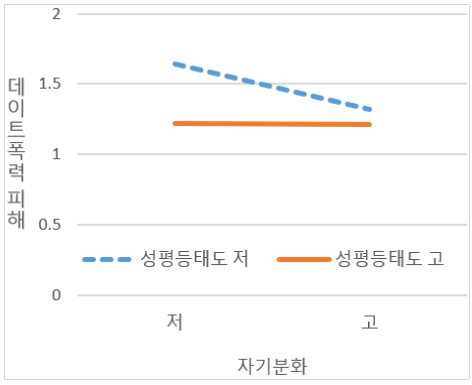

그림 3. 자기분화가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평등태도의 조절효과

표 6.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성평등태도로 조절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분석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t*	*LLCI*	*ULCI*
자기분화	성별	.375	.060	-6.254***	.256	.493
	가정폭력경험	-.138	.024	-5.871***	-.185	-.092
				F=40.264***, R^2=.156		
데이트폭력 가해	성별	.035	.055	0.640	-.073	.144
	가정폭력경험	.183	.018	10.186***	.148	.219
	자기분화	-.162	.036	-4.465***	-.233	-.091
	성평등태도	-.304	.051	-6.024***	-.403	-.205
	자기분화×성평등태도	.230	.060	3.883***	.113	.345
				F=51.534***, R^2=.373		
데이트폭력 피해	성별	.135	.048	2.802**	.040	.229
	가정폭력경험	.208	.016	13.264***	.177	.238
	자기분화	-.073	.032	-2.316*	-.135	-.011
	성평등태도	-.259	.044	-5.900***	-.345	-.173
	자기분화×성평등태도	.183	.051	3.559***	.082	.284
				F=66.037***, R^2=.432		

주. N=440. *p<.05, **p<.01, ***p<.001.

표 7.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성평등태도 수준별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매개변인	조절변인	조절변인 수준	Effect	Boot *SE*	*LLCI*	*ULCI*
데이트폭력 가해	가정폭력 경험	자기분화	성평등 태도	-1 *SD*	.039	.010	.022	.061
				Mean	.022	.006	.013	.035
				+1 *SD*	.006	.006	-.006	.016
데이트폭력 피해	가정폭력 경험	자기분화	성평등 태도	-1 *SD*	.023	.009	.008	.041
				Mean	.010	.004	.002	.019
				+1 *SD*	-.003	.005	-.014	.005

된 매개모형을 분석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Macro의 Model 14를 활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또한 성평등태도의 평균과 ±1 표준편차의 3개 지점에서 가정폭력경험이 자기분화를 매개로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와 그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의 관계에 대한 조절된 매개모형에서 성평등태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B=.230, p<.01). 이때 성평등태도의 평균과 ±1 표준편차의 3개 지점에서 가정폭력경험이 자기분화를 매개로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와 유의성을 확인해 보면, 매개효과 크기는 성평등태도 -1 표준편차 지점에서는 유의하였고(매개효과=.039, CI=.022～.061), 성평등태도 평균 지점에서는 매개효과의 크기가 작아지지만 유의하였으며(매개효과=.022, CI=.013～.035), 성평등태도 +1 표준편차 지점에서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매개효과=.006, CI=-.006～.016).

이와 유사하게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 피해의 관계에 대한 조절된 매개모형에서 성평등태도의 조절효과도 유의하였다(B=.183, p<.01). 성평등태도의 평균과 ±1 표준편차의 3개 지점에서 가정폭력경험이 자기분화를 매개로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와 유의성을 보면, 매개효과 크기는 성평등태도가 -1 표준편차일 때 유의하였고(매개효과=.008, CI=.022～.041), 성평등태도가 평균일 때는 매개효과의 크기가 작아지지만 유의하였고(매개효과=.010, CI=.002～.019), 성평등태도가 +1 표준편차일 때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매개효과=-.003, CI=-.014～.00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경험, 자기분화 및 성평등태도가 연애 중인 미혼 성인의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고(연구가설1), 이들 간의 관련성을 자기분화가 매개할 것으로 보았다(연구가설2). 이에 더하여, 자기분화가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성평등태도로 조절되고(연구가설3), 나아가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도 성평등태도로 조절될 것으로 가정하였다(연구가설4).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가

설 순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가설1에서는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지지하였다. 이는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를 설명한다는 선행연구(문지혜, 정혜정, 2015; 박미랑, 2009; 안귀여루, 2006; 이수정, 김은영, 2022; 이은민 등, 2022)를 지지하며, 데이트폭력 피해와도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문지혜, 정혜정, 2015; 박미랑, 2009; 안귀여루, 2006)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기제로 해석할 수 있다. 성장기에 폭력에 자주 노출되었을 때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고 폭력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허용함으로써, 데이트폭력 가해뿐만 아니라 피해의 위험성이 높아졌을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은 데이트폭력 가해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장기에 폭력적인 부모와 상호작용하면서 폭력 행동을 학습하였다가 성인기 연인관계에서 스트레스나 갈등을 경험할 때 학습한 폭력적 방식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많다는 것은 적응적이고 바람직한 갈등 해결방식을 습득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다는 것을 함의하므로, 성인기 연인관계에서 의견 불일치나 갈등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레파토리가 적기 때문에 익숙한 방식인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연구가설2에서는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자기분화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자기분화가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고, 연구 결과 자기분화는 이들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방식이 자기분화를 매개하여 자녀의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에 영향을 준다고 한 이명신과 이계민(2013)의 연구를 지지한다. 자녀에게 폭력을 행한다는 것은 자녀와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을 허용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Bowen이 개념화한 원가족 건강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정폭력은 관계성과 개별성이 모두 취약한 낮은 수준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것이다(Kerr & Brown, 1988). 가정폭력 등으로 원가족의 건강성이 낮을 때 자녀는 사고와 감정을 분리하지 못하고 감정에 압도되기 쉽고 타인에게 밀착하게 되는데, 이는 타인과의 경계를 침입하는 데이트폭력 가해나 타인의 침입을 허용하는 데이트폭력 피해에 대한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때 이에 대해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가정폭력 경험이 누적되면 다른 대인관계나 외부환경의 자극에 대해서도 감정에 따라 반응하게 되고, 성인기 연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부정적 감정에 압도되어 합리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데이트폭력 가해 양상을 보일 수 있다(Rosen et al., 2001). 폭력적인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는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도 자기입장을 드러내지 못하는 낮은 자기분화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서 연인관계에서도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함으로써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파트너의 폭력에 저항하지 못함으로써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부모의 폭력으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을 때 관계성의 욕구를 충

족하기 위해서 타인과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얽힌 융합된 관계를 형성하게 될 수 있는데, 폭력적 연인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지속함으로써 더 큰 데이트폭력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부모가 폭력으로 자녀의 개인적 영역을 침입하고 위협할 때 자녀는 정서적으로 단절하고 자신을 고립시키는 낮은 수준의 자기분화에 머무르게 되는데, 연인관계에서 정서적 단절과 냉담과 같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더 많은 갈등과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종합하자면 성장기의 가정폭력경험은 직접적으로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개인의 감정 및 사고의 균형과 대인관계에서 관계성과 개별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기분화 수준을 낮춤으로써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는 자녀의 성장기에 부모가 자녀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자녀와 애정에 기반하여 친밀감을 형성할 때, 자녀는 연애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의사결정하며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건강한 연애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나아가서 심리적, 신체적, 성적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함의한다.

연구가설3에서는 자기분화가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성평등태도가 완충할 것으로 가정하였고, 연구 결과는 이를 지지하였다. 성평등태도는 남녀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하게 대우받고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개발하고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성별에 따라 역할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평등하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평등한 성역할태도와 맥을 같이 한다(위정미, 이종연, 2020). 본 연구 결과 자기분화와 데이트폭력 가해 간의 부적 관련성은 성평등태도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성평등태도가 낮을 때에 비해서 높은 수준일 때 자기분화와 데이트폭력 가해 간의 부적 관련성이 낮았다. 성평등태도의 조절효과는 자기분화와 데이트폭력 피해 간의 관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성평등태도가 낮을 때에는 자기분화가 데이트폭력 피해에 부적 영향을 미쳤지만 성평등태도가 높을 때에는 자기분화가 데이트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자기분화가 낮다고 하더라도 성평등태도가 높은 경우에는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 수준이 낮았다. 이 결과는 성별에 따라 성역할을 구분하는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데이트폭력 피해 및 가해가 높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서경현 등, 2010; 최윤경, 송원영, 2014; Lichte & McCloskey, 2004)를 지지한다.

본 연구 결과는 개인이 연인과 과도하게 융합하려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이성적인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연인에게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면 이들 간의 관련성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인과 정서적으로 얽혀있으면서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고 자기 입장을 언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워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성평등태도로 연인관계에서 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을 함의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평등태도를 고양하는 교육이 데이트폭력의 가해와 피해 모두를 예방하는 데 중요함을 보여준다(위정미, 이종연, 2020).

연구가설4에서는 연구가설2와 연구가설3을

통합하여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 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가 성평등태도 수준에 따라 조절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성평등태도가 낮거나 평균 수준일 때에는 가정폭력경험이 자기분화를 낮추고 이를 매개하여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 모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평등태도가 높을 때에는 가정폭력경험이 자기분화 수준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낮은 자기분화 수준이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 결과는 낮은 자기분화가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성평등태도가 완충하는 것에 더해서,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 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를 성평등태도가 조절함을 의미한다. 이는 성차이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성역할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젠더감수성이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 간의 부적 관계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이수정과 김은영(2022)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학교폭력과 데이트폭력 가해 간의 관계를 젠더감수성이 조절한다고 보고한 이화숙(2016)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성장기에 이미 경험한 가정폭력 피해를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만들 수는 없고, 자기분화 수준을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성평등태도는 교육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단기간에도 증진될 수 있기 때문에(김경령, 서은희, 2021),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 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가 성평등태도로 조절된다는 본 연구 결과는 교육과 상담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 간의 관련성을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인의 연구 필요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분화의 매개효과와 성평등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에서는 원가족 내에서의 정서과정이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고 보는데(Kerr & Bowen, 1988), 본 연구 결과는 원가족에서의 가정폭력경험도 자녀의 자기분화를 낮춤으로써 성장한 자녀의 연인관계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폭력도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는 경우보다 쌍방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Straus, 2008),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를 둘 다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동일한 연구 대상자의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간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자기분화, 성평등태도 및 데이트폭력 간의 관련성이 데이트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 가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확장하였다. 넷째,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 간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개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데이트폭력 가해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본 연구는 20대와 30대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을 연구함으로써 연구의 결과의 일반화를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는 데에도 차별점과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상담 실제에 대해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성장기 가정폭력경험이 자기분화를 매개로 성인기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폭력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분화를 높임으로써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담자는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호소하고 가정폭력경험을 보고하는 내담자의 자기분화를

높이기 위하여 폭력과 관련된 가계도 탐색, 역기능적 삼각관계의 탐색과 치료적 삼각관계를 활용한 탈삼각,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인식하고 유지하기 등(Kerr & Bowen, 1988)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족체계적 개입으로 가정폭력이 일어난 원가족 체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연인관계에서의 폭력 가능성도 낮추며, 폭력경험과 관련된 정서적 불안이 다음 세대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태도가 자기분화의 효과를 조절함으로써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한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이는 데이트폭력 가해자나 피해자를 상담할 때 성평등태도를 고양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차별을 알아차리고 성찰하며 성평등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체계의 관점에서 상담자는 자기분화를 높이기 위한 가계도 탐색에서도 가족 구성원의 성평등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성평등태도 혹은 성차별태도가 가족 체계와 내담자의 연인관계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족 내에서 남녀의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고 표현하도록 돕고 폭력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폭력을 허용하지 않도록 독려함으로써(문지혜, 정혜정, 2015), 원가족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연인관계로 전이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내담자가 성평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할 수도 있는데, 김경령과 서은희(2021)는 젠더에 대한 이해, 성차별에 대한 이해, 성폭력의 이해, 사회 변화와 자기성찰을 주제로 하는 젠더 감수성 프로그램이 남녀 대학생의 여성혐오, 성차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성폭력 인식 수준을 높였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위에 기술한 학문적 의의와 상담 실제에 대한 함의를 가지지만,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이성과 교제 중인 20대와 30대의 미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청소년, 40대 이상의 성인, 이성애자가 아닌 성인의 데이트폭력에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데이트폭력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가 배우자폭력이나 혼외 데이트폭력에서도 반복적으로 검증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관심사는 성장기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분화와 성평등태도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고, 성차에는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 주요 변인에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성별의 효과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연구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조영주, 심은정, 2023; Dardis et al., 2015)와 같이 성별 유사성과 차이점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커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커플의 상호작용을 알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데이트폭력은 연인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성장기 가정폭력경험, 자기분화 및 성평등태도가 자신과 파트너의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커플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 시점에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변인 간의 관련성을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성장기 가정폭력경험은 자기분화, 성평등태도, 데이트폭력 경험에 선행한

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의 자기분화, 성평등태도, 데이트폭력 경험이 성장기 가정폭력경험의 회상과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정할 수 있는 종단연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경찰청 (2020). 데이트폭력, 신고해야 할 '범죄' 입니다. 경찰청 브리핑. https://www.police.go.kr

김경령, 서은희 (2021). 대학생을 위한 젠더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효과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8), 427-441.

김은경, 엄애선 (2010).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759-777.

김재엽, 송아영, 한 샘 (2010). 청소년 자녀의 가정폭력목격경험과 자녀학대피해경험 중복피해에 따른 우울 및 폭력비행행동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2), 1-26.

김정란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란, 김경신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8), 73-90.

문지혜, 정혜정 (2015). 대학생이 지각하는 성장기 폭력 경험과 폭력허용도 및 데이팅 폭력의 관계. 가족과 가족치료, 23(4), 6274-653.

박미랑 (2009). 한국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에 관한 연구: 성과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3(2), 193-227.

박은아 (2021). 데이트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인문사회21, 12(1), 2237-2250.

박진경 (2019).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성인의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연인관계 내에서의 심리적 폭력 피해의 관계: 단절 및 거절 도식과 관계중독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경현, 김유정, 정구철, 양승애, 김보연 (2010).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과 성-포괄적 모델의 타당성 제고.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781-799.

성용은 (2021). 데이트 폭력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7(1), 113-130.

안귀여루 (2006). 대학생의 성적 강요 경험과 성격특성, 태도 및 성장기 폭력 경험의 관련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47-61.

엄혜정, 정혜정 (2006).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이 자아 존중감 및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2), 1-16.

위정미, 이종연 (2020). 대학생의 성평등의식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2), 1341-1370.

윤진, 양승연, 박병금 (2012) 가정폭력경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열등감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6), 79-107.

이명신, 이계민 (2013).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아분화가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2(2), 225-271.

이수연, 김인순, 고재훈 (2018). 개정 한국형남

녀평등의식검사 개발(II): 표준화 규준 마련 및 검사활용 매뉴얼 제작.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수정, 김은영 (2022).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데이트폭력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젠더감수성의 역할: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7(1), 1-21.

이은민, 최은주, 이주희 (2022).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9(9), 235-261.

이지연, 이은설 (2005).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와 가해에 대한 설명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19-436.

이진영 (2011). 젠더감수성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현정 (2018). 데이트 폭력에 관한 최근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융합정보논문지, 8(4), 153-161.

이화숙 (2016). 대학생의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 신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은희, 정여주 (2017). 대학생 커플관계에서 자기분화가 커플관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상담학연구, 18(5), 153-168.

정혜원 (2020). 데이트폭력의 현실, 새롭게 읽기. KOSTAT 통계플러스, 11, 28-39.

정혜정, 조은경 (2007).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 개발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15(1), 19-46.

조영주, 심은정 (2023).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중독의 매개효과: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2), 587-608.

최연화 (2012). 대학생의 자아분화, 성인애착, 관계중독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3(2), 689-704.

최윤경, 송원영 (2014). 여대생의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명시적, 암묵적 성 고정관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4), 433-446.

최해림, 조영주 (2001).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71-91.

한미향 (1999).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홍미리 (2005). 젠더감수성(gender sensibility) 확장을 통한 일상적 폭력에 대한 인식과 저항: 피해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Baptist, J. A., Thompson, D. E., Norton, A. M., Hardy, N. R., & Link, C. D. (2012). The effects of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amily emotional processes on conflict styles: The moderating role of attachment.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40*(1), 56-73.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erzenski, S. R., & Yates, T. M. (2010). A developmental process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of childhood emotional abuse to relationship violenc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9*(2), 180-203.

Bowen, M. (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London: Aronson.

Briere, J., & Runtz, M. (1988). Multivariate correlates of childhood psychological and physical maltreatment among university women. *Child Abuse & Neglect, 12*(3), 331-341.

Chan, K. L., Straus, M. A., Brownridge, A. T., & Leung, W. C. (2008). Prevalence of dating partner violence and suicidal ideation among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Journal of Midwifery & Women's Health, 53*(6), 529-537.

Dardis, C. M., Dixon, K. J., Edwards, K. M., & Turchik, J. A. (2015). An examination of the factors related to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mong young men and women and associated theoretical explanatio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Trauma, Violence, and Abuse, 16*(2), 136-152.

Exner-Cortens, D., Eckenrode, J., & Rothman, E. (2013).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teen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and adverse health outcomes. *Pediatrics, 131*(1), 71-78.

Gubbins, C. A., Perosa, L. M., & Bartle-Haring, S. (2010). Relationships between married couples' self-differentiation/individuation and Gottman's model of marital interaction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2*(4), 383-395.

Harter, S. (1998). The effects of child abuse on the self-system.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1), 147-169.

Holtzworth-Munroe, A. (2005). Male versus female intimate partner violence: Putting controversial findings into contex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5), 1120-1125.

Horwitz, S. H., Santiago, L., Pearson, J., & LaRussa-Trott, M. (2009). Relational tools for working with mild-to-moderate couple violence: Patterns of unresolved conflict and pathways to resolut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0*(3), 249-256.

Jennings, W. G., Richards, T., Tomsich, E., Gover, A., & Powers, R. (2013).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causal link between child abuse and adult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from a propensity-score matching approach. *Women & Criminal Justice, 23*(3), 167-84.

Johnson, M. P., & Leone, J. M. (2005). The differential effects of intimate and situational couple violence: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Journal of Family Issues, 26*(3), 322-349.

Kaura, S. A., & Lohman, B. J. (2007). Dating violence vitimizat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mental health problems, and acceptability of violence: A comparison of men and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22*(6), 367-381.

Kelly, J. B., & Johnson, M. P. (2008). Differentiation among typ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Research update and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Family Court Review, 46*(3), 476-499.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on Bowen theory*. New York, NY: Norton.

Kim, J., & Cicchetti, D. (2006). Longitudinal trajectories of self system processe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77*(3), 624-639.

Klencakova, L. E., Pentaraki, M., & McManus, C. (2023). The impact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on young women's educational well-being: A systematic review of literature. *Trauma, Violence, & Abuse, 24*(2), 1172-1187.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NY: Guildford Press.

Leemis, R. W., Friar, N., Khatiwada, S., Chen, M. S., Kresnow, M., Smith, S. G., Caslin, S., & Basile, K. C. (2022). *The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2016/2017 report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Atlanta, GA: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Lichter, E. L., & McCloskey, L. A. (2004). The effects of childhood exposure to marital violence on adolescent gender-role beliefs and dating viole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8*(4), 344-357.

Miller, E., & McCaw, B. (2019).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80*(9), 850-857.

Murnen, S. K., Wright, C., & Kaluzny, G. (2002). If "boys will be boys," then girls will be victims?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research that relates masculine ideology to sexual aggression. *Sex Roles, 46*(11/12), 359-375.

Ozaki, R., & Otis, M. D. (2017). Gender equality, patriarchal cultural norms, and perpetration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Comparison of male university students in Asian and European cultural contexts. *Violence Against Women, 23*(9), 1076-1099.

Parker, E. M., & Bradshaw, C. P. (2015). Teen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and patterns of substance us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7*(4), 441-447.

Peleg, O., & Rahal, A. (2012). Physiological symptoms and differentiation of self: A cross-cultural exa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6*(5), 719-727.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Reyome, N. D. (2010).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later intimate relationships: Themes from the empirical literatur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9*(2), 224-242.

Rich, C., Gidycz, C., Warkentin, J., Loh, C., & Weiland, P. (2005). Child and adolescent abuse and subsequent victimization: A prospective study. *Child Abuse and Neglect, 29*(12), 1373-1394.

Riggs, D. S., O'Leary, K. D., & Breslin, F. C. (1990). Multiple correlates of physical aggression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1), 61-73.

Rosen, K. H., Bartle-Haring, S., & Stith, S. M.

(2001). Using Bowen theory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22*(1), 124-142.

Shorey, R. C., Cornelius, T. L., & Bell, K. M. (2008). A critical review of theoretical frameworks for dating violence: Comparing the dating and marital field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3*(3), 185-194.

Skowron, E. A., & Platt, L. F. (2005). Differentiation of self and child abuse potential in young adulthood. *The Family Journal, 13*(3), 281-290.

Skowron, E. A., Stanley, K. L., & Shapiro, M. D. (2009).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differentiation of self, interperson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young adulthood.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1*(1), 3-18.

Skowron, E. A., Van Epps, J. J., & Cipriano-Essel, E. A. (2014). Toward a greater understanding of differentiation of self in Bowen family systems theory: Empirical developments and future directions. In P. Titelman (Ed.), *Differentiation of self: Bowen family systems theory perspectives* (pp. 355-391). New York, NY: Routledge.

Straus, M. A. (2008) Dominance and symmetry in partner violence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32 nation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0*(3), 252-275.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Temple, J., & Freeman, D. (2011). Dating violence and substance use among ethically diverse adolesc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4), 701-718.

Thompson, J., & Mcgivern, J. (1995). Sexism in the seminar: Strategies for gender sensitivity management education. *Gender & Education, 7*(3), 341-350.

U.S. Department of Justice. (2003). Dating violence. Retrieved July 8, 2023, from https://www.justice.gov/ovw/dating-viole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Intimate partner violence.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violence against women.* WHO Press.

Wright, M. O., Crawford, E., & Del Castillo, D. (2009).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later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maladaptive schemas. *Child Abuse & Neglect, 33*(1), 59-68.

Yllo, K. (1993). *Though a feminist lens: Gender, power, and violence.* Newsbury park, CA: Sage.

You, S., & Shin, K. (2020). Influence of patriarchal sex-role attitudes on perpetration of dating violence. *Current Psychology, 41*(2), 943-948.

원 고 접 수 일 : 2023. 10. 16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1 .15
게 재 결 정 일 : 2024. 01. 26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4, Vol. 36, No. 1, 205-228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and Dating Violenc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Moderated by Gender Equality Attitudes

Eun Jung Shim
With-Me Counseling Center
Director

Young-ju Cho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and dating violence (perpetuation and victimization) while investigating whether this mediating effect is moderated by gender equality attitudes. Data from 440 unmarried adul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tilizing SPSS 27.0 and SPSS Macro.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and dating violence (perpetuation and victimization).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equality attitudes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dating violence (perpetuation and victimization). Third, self-differentia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and dating violence (perpetuation and victimization), and this mediating effect was moderated by gender equality attitudes, confirming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Key words :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dating violence, self-differentiation, gender equality attitudes